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여성결혼이주자 가정을 중심으로 -

남 부 현(경기대 강사) · 정 천 석(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소장)

I. 서 론

최근 10년 동안 수적으로 증가한 이들은 결혼을 통해 또는 일자리를 찾아 우리사회에 유입된 이민자 들이다. 이들 중 특히 결혼을 통해 들어온 여성 이민자들은 1990 년대 이후 꾸준히 그 수가 늘어 2009년 현재 총167,090명으로 추산되며, 그들의 자녀들 또한 2009년 103,484명으로 조사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이들 자녀들은 2020년에는 총 14만 2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주자와 그 자녀들의 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실동훈,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국에서 여성결혼이주자들이 꾸린 가정은 대표적인 “다문화가정”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남성과 타인종/민족 여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부부형태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 부부들은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도 서로 다른 언어,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양식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에서 종종 소외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언어가 부족하고 자녀 양육의 가치관이 다른 한국 어머니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제한 받으며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다 (McFadden, 2001; Ratliff et al, 1978; 서덕희, 2008; 우희숙, 2010).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상황을 국내외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 Banks(2009)의 4가지 접근법에 의해 현재 다문화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해 보고, 그 중 변혁적 접근법(transformation approach)과 사회행동적 접근법(social action approach)에 근거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원리를 제시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특성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주요 개인적 특성은 이들 결혼이주자들이 저개발 국가 출신들이 대부분이며,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고, 자신의 친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한 경우이다(김한곤, 2009; 임형백, 2009).

한국의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주자들은, 특히, 시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과 노인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와 제사 모시기 등의 문화적인 차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한건수, 2009). 가족 내에서도 한국인 부모나 친척들의 냉담하거나 지배적인 태도로 인해 이들 여성들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가족관계에도 갈등을 겪으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저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2005). 한건수(2008)의 연구에서, 이들은 또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외국인인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며 바깥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 가정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의 부족, 문화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불만이 높으며(김한곤, 2009; 한건수, 2008),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가사분담 문제, 결혼 만족 등에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순미 등, 2006).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사회적응과 가정에서의 삶은 한국 남편의 경제적 교육적 여건에 따라 다르며, 남편이 배우자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김한곤, 2009). Ratliff 등(1987)은 다문화가정의 부부인 경우 주 문화를 가진 남편이, 부인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려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licov(1995)에 따르면, 타 문화에서 온 여성결혼이주자들은 타 문화의 가치관, 규범, 행동양식, 그리고 의식 등을 받아들이는 갈등과 변화의 시기를 거친다고 설명한다(Crippen & Brew, 2007, 재인용).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여성결혼이주자들은 스스로 언어의 장애와 문화적 부적응으로 자녀들을 위한 적절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안권순, 2009).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교육에 주도권을 잡고 그 역할을 행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외국인이란 이유로 가족 내 사람들의 결정에 따르는 경향이 높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권리 또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서덕희, 2008). 2009년도

특히나, 한국의 대가족 체계에서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주자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련하여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에 대한 기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먹이기(feeding), 돌보기(caregiving) 및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문화적인 적응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들의 어머니로서 양육행동과 역할 수행은 소극적이 되어진다(Coll & Patcher, 2002; 한건수, 2006).

현재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러한 고민과 문제점 그리고 어려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정 밖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즉, 자녀를 직접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그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직접적인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특성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부모의 국적이나 외모, 언어미숙 등으로 따돌림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설동훈, 2005). 특히 어린 자녀들은,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보인다고 밝혀졌다(오성배, 2005; 교육부, 2007).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문화적 선입견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로부터의 집단 따돌림, 인종차별 등을 경험한다고 대답하였다(한준상, 2008; 안권순, 2009; 우룡,

2009).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에서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 사귀기, 그리고 학교 공부도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밝혀졌다(우룡, 2009). 이들은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07).

학교 안에서도 이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의 몰이해와 편견,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학교 환경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분(2008)은 집단 따돌림과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이 학생들의 자신감 결여와 자기비하,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족 등으로 학업은 물론 모든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교육부, 2006). 설동훈(2009)은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이들의 기여도는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무조건 “혼혈인”으로 범주화하고 차별과 멸시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Clarke(1997)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느냐가 따라 학교에서 그들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들도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그들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따라 그들의 학교적응, 정체성 확립, 교우관계,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에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조영달 외, 2006; 조혜영 외, 2008).

Ⅲ. 다문화 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방향

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법

Banks(2006)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4단계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즉, 기여적, 부가적, 변혁적, 그리고 사회행동적 접근법을 제시하여, 초보적 수준부터 진보적인 수준까지 교육과정에 문화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 어떻게 준비되어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

- 1) 기여적 접근법 (The contribution approach)
- 2) 부가적 접근법 (The additive approach)
- 3) 변혁적 접근법 (The transformation approach)
- 4) 사회적 행동 접근법 (The social action approach)

2.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분석

한국의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시각에서 개발되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어떤 관점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위해 어떻게 개발 제공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연구자와 개발자들은 교육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거쳐 교육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조화된 지식이 사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조작적으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잠재적으로 내재된 세계관, 남녀의 역할, 사회적 관점 등이 교육적으로 올바른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Aoki, 1986; Plihal et al., 1999). Aoki는 모든 교육 행위는 정치적으로 의도된 목적과 이해를 벗어나 교육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비판적으로 숙고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들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도 참가 어머니들이 한국적인 자녀양육/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방법들을 익히는데 치중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타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들이 주로 지식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가적 접근법(additive approach)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자녀들이 학교의 기존 체제와 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준비되었다고 본다.

3.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리와 방향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Banks의 변혁적 접근법(transformation approach) 또는 사회적 행동 접근법(social action approach)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정 부모들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협동(collaboration)과 대화, 그리고 문제 해결법(dialogue and problem-solving)을 통해 서로의 가치와 신념들을 분석하고,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상호 합의된 가치관과 실천방법을 도출해 내는 교육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장혜진, 2010 재인용).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부모가 함께 참여함을 원칙으로 Banks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통합적 관점인 변혁적 접근법, 그리고 사회적 행동 접근법에 기초 한 7 가지 주요원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성숙된 다문화 사회는 각자의 다름과 차이에 가치를 부가하고 사회전체 구성원들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의존하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인 것이다(UNESCO, 2008).

현재 부가적인 접근법에 근거하여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새로운 업무이며 테스트인 자녀양육/교육을 공통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두 사람이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통해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과, 사회에 잠재적으로 내재한 불평등, 소외, 편견과 차별 등을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안목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천능력(empowerment)을 기르도록 함에 최종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진행자, 그리고 교육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태도,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론 정립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넷째, 넓게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결혼이주자 가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한 경 님(청강문화산업대학 강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내에서 한국인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 가운데는 부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가족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결혼 초기에 육아관련 준비 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정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며 대부분 자녀의 육아 시기는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 시기와 겹쳐져 혼란과 자녀 육아의 고충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을 갖게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결혼 이민자 어머니들의 한국문화 적응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 여성 대상의 사회 통합정책은 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의 문화적응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적응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출신국가, 학력, 성격 등의 개인배경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체계,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 자녀 양육 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들에게 요구한 한국사회로의 동화와 혼동될 수 있는 통합(integration)의 의미를 편입(incorporation)의 의미로 재조정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발표자의 논문에서 Banks의 체계적인 4가지 다문화교육 접근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접근법에 근거하여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원칙으로 부모가 함께 참여함을 원칙으로 Banks의 다문화 교육의 통합적 관점인 변혁적 접근법, 그리고 사회적 행동 접근법에 기초하여 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함께 참여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empowerment)을 기르는 일이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결혼이민 여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 우리의 자녀를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키워나갈 주역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여성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결혼이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초기 한국생활의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